죽음을 애석히 여기며 슬퍼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동산사 ②



조동종 개창조인 동산 양개 선사가 가르침을 크게 편 보리선사(동산사)

동산사가 자리한 산자락을 가깝게 보니 마치 고향집 같이 포근하다. 산길을 걸어올라 가빠진 숨을 고를 만한 곳이 바로 현재 보리 선사(菩提禪寺)로 불리는 동산사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은 산자락의 길지(吉地)다. 아취형의 산문 벽에도 산세를 드러내는 두 줄의 주련이 쓰여 있다.

동산을 드리운 안개구름은 한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산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일어 한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네(洞中雲鎖三冬暖 山澗風生九夏寒).

동산 선사의 가풍을 드러낸 주련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느 날 한 학인이 동산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집 〈벽암록〉 43칙에 나오는 동산무한서(洞山無寒署)이다. 우리말로 풀자면 '동산의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 이다.

"몹시 덥거나 추울 때, 어떻게 해야 그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동산에게 부질없이 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도(道)란 구체적인 일상 속에 있지 관념의 허상이 아닌 것이다. 학인의 물음은 도(불법)를 묻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분별하지 말고 실상을 바로 보면 된다는 대답이다.

"그럼 어떤 곳이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입니까."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고, 추울 때도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라!"

그대 자신에게서 도를 봐야지 밖에서 찾지 말라는 일갈이다.

황벽은 노모 내쫓아 도를 이루고
동산은 노모를 그리다 도를 이뤄

산문을 조금 지나니 천왕문이 나타난다. 천왕문 벽에도 조동종의 종지인 오위군신(五位君臣)이라는 선어(禪語)가 쓰여 있다. 오위란 본체와 현상이 하나가 되는 다섯 단계를 말하고, 군신이란 왕과 신하의 자리가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절대자유, 즉 체용일여의 경지라고 한다. 오위군신은 편정회호(偏正回互)라고도 하는데, 편과 정은 현상과 본체이고 회호란 열린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어서 머리가 무겁다. 더 자세한 뜻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학사전〉을 펼쳐보라고 하고 싶다. 이런 조동종 종지보다는 동산 선사의 어머니 얘기가 나는 더 끌린다. 황벽 선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두 선사의 어머니를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선지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유태인 격언도 있다. 걸출한 두 선사 뒤에는 어머니의 숨은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모(母)와 자(子)가 불법으로 회호(回互)한 사연이 너무나 눈물겹다. 그 회호한 사연도 두 선사의 가풍만큼이나 다르다. 황벽 선사는 찾아온 어머니를 내쫓아 도를 드러내고, 동산 선사는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부처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

황벽 선사가 황벽산에서 수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살 때였다. 어느 날 한 노파가 황벽 선사를 찾는다고 한 대중스님이 전했다. 선사는 한 눈에 노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저 늙은이에게 물 한 모금, 쌀 한 톨도 주지 말고 절에서 내보내거라."

절에서 쫓겨난 노모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걸인이 되었다. 그러나 노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배고프고 병이 들어 대의강 강변에 이르러 죽고 말았다. 그날 밤 황벽 선사는 꿈에서 노모를 만났다. 선사가 노모를 인정사정없이 내쫓은 것은 세속의 정을 끊고 도의 길로 인도하기 방편이었던 바, 과연 노모는 천상에 태어나 있었다.

"내가 스님에게 물 한 모금 쌀 한 톨이라도 얻어먹었다면 다생으로 내려온 모자의 정을 끊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나를 내쫓았을 때 모자의 정이 다 끊어져 도의 길을 본 공덕으로 죽어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스님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일설에는 황벽 선사의 노모가 절에서 쫓겨난 뒤 선사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눈이 멀게 되어 대의강 나루터 오두막에 살게 되었는데, 노모는 선사를 만나기 위해 오가는 스님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사고가 나 한쪽 발가락이 없는 선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사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버린 노모를 만나 발을 씻게 되었지만 자신을 감추고 만다. 노모가 한쪽 발을 내밀어달라고 하는 순간 노모임을 알아채고는 종기가 나 씻을 수 없다고 하며 일어서버렸던 것이다. 얼마 뒤 노모는 동네사람들에 의해 선사가 왔다가 갔음을 알게 되어 크게 낙담하여 죽게 되고 선사가 찾아가 화장을 해주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도 엄혹하고 준열한 황벽 선사의 가풍이 다 드러나 있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인정사정없는 수행자가 도인이란 말은 아닐 터이다. 선어록에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짐작해본다면 아무리 매몰찬 황벽 선사라 해도 꿈에서 노모를 만나고 나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눈물이 아니라 감정에 매이지 않는 그런 눈물을 흘렸을 터이다.

반면에, 동산 선사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봄바람처럼 부드럽다. 또한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은 동산 선사를 위대한 선승으로 이끈다. 동산 선사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학인들이 강원에서 배우는 〈치문〉에도 나온다. 선사가 20세 전후에 부모님과 하직하고자 띄운 편지다.

〈…경에서는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9족이 하늘에 태어난다' 고 하였습니다. 저 양개는 맹세코 이 생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겁 티끌몸(根塵) 그대로 반야지혜를 활짝 깨치려 합니다. 바라옵건대, 부보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어 속으로 자꾸만 생각지 마시고 거룩한 정반왕과 마야부인을 본받으소서. 뒷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기를 기약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헤어지고자 합니다.

저 양개는 부모 봉양 못했다는 5역죄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금생에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몇 생을 기다려 구제할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저를 잊어주소서….〉

마음은 이미 불문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마음을 돌리라는 동산 선사의 효심이 내 영혼을 적시는 것 같다. 선사는 10년 후 다시 오매불망 자신을 기다릴 것 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편지를 띄운다.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거둬들여 도를 바라보고 생각을 다잡아 공(空)으로 돌리소서. 이별의 마음을 머물려 두지 마시고 문에 기대 기다리지 마소서.

집안일이란 인연을 따르는 것이어서 갈수록 늘어나 나날이 번뇌만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님은 힘써 효도하여 얼음 속에서 고기를 얻어낼 것이며, 아우는 힘을 다해 모셔서 서리 속에서 죽순이 나오라고 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닦고 효도를 하여 본성(天心)에 합하고, 이 사문은 불법문중에서 도를 바라보고 참선하여 어머님의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절집이 무사하려면 떠날 때
시끄럽게 요동하지 말아야

마침내 노모가 오랜 동안의 기다림을 접고 선사의 뜻대로 정진하여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는 답서를 보내기에 이른다.

〈…자식은 어미를 버릴 마음이 있으나, 어미는 자식을 버릴 뜻이 없습니다. 스님이 일단 다른 곳으로 떠난 뒤에는 밤낮으로 항상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니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스님 뜻대로 하기를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스님이 목련존자처럼 되어서 나를 구제하여 윤회에서 해탈케 하고 나아가 부처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니 깊이 새겨듣도록 하십시오….〉

강원의 학인들이 동산 선사의 편지를 읽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번질 것 같다. 훗날 동산 선사가 되고 목련존자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을까 싶다.

방장실 안을 기웃거리는데, 조인중광(祖印重光)이란 선어가 보인다. '조사의 심인이 거듭 빛난다' 라는 뜻이리라. 문득 나는 '그 빛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상념에 잠긴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것이 화두라고 한 말도 떠오른다. 동산 선사 묘탑은 절 바로 뒤편에 있다. 둥그런 형태의 묘탑 보호각에는 개산시조 양개 선사 혜각보탑(開山始祖良价禪師慧覺寶塔)이라고 쓰여 있다. 혜각은 황실에서 내린 법호이리라.

순례 일행은 묘탑 앞에서 향을 사른 뒤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합장한다. 동산 선사께서 입적 무렵에 하신 법문이 가슴을 친다. 선사께서 '조사열반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인 뒤 입적에 드신 것이다. 〈동산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천화(遷化) 편이 아닐까 싶다. 그대로 옮겨 본다.

〈…이윽고 머리 깎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라 명하고는 종을 울려 대중과 하직하더니, 엄연하게 앉아서 천화하셨다. 그때 대중들이 울부짖고 통곡하며 한참을 지나도 그치질 않자 선사가 홀연히 눈을 뜨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출가인이라면 마음을 사물에 붙이지 않아야만 진실한 수행인이다. 삶을 수고롭게 하고 죽음을 애석히 여기며 슬퍼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일을 주관하는 원주에게 우치재(愚痴齋)를 준비하라 하셨다. 대중들이 그래도 연연해 하자 7일간 연장하셨다. 음식과 도구가 갖추어지자 선사는 대중을 따르다가 재가 다하자 이윽고 말씀하셨다.

"절집이 무사하려면 대체로 떠날 때 시끄럽게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윽고 방장실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영영 떠나시니 그날은 함통(咸通) 10년(869) 3월이었다. 세수 63세 법랍 42세 시호는 오본(悟本), 탑은 혜각이라 이름하였다….〉

묘탑 보호각 뒤로 가서 철문을 여니 탑을 세운 제자들의 이름들이 보인다. 사법제자(嗣法弟子) 21명이 열거돼 있다. 그런데 본적(本寂), 광인(匡仁), 보만(普滿), 도출(道出), 거둔(居遁), 성계(成啓) 뒤에 7번째로 신라출신의 구법승 금장(金藏)이 보인다. 동산 선사의 걸출한 제자들 가운데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이 예사롭지 않다. 다만 행적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경전전등록〉 권17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을 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묘탑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선승이었음이 확실하다. 이번에는 금장 선사의 영혼을 부르며 고개를 숙인다.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도(道)를 이룬 동산 양개 선사 묘탑.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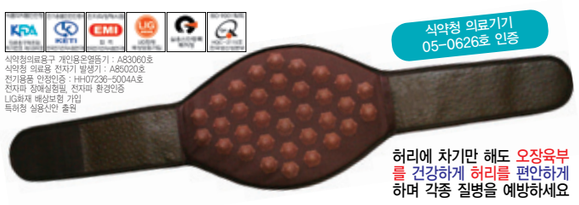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